

# 日本の 農産物 流通構造에 관한 研究 ( I )

— 德川期~明治期를 中心으로 —

姜 景 璿

## 目 次

- |                                      |                       |
|--------------------------------------|-----------------------|
| I. 序                                 | 1. 序                  |
| II. 青果物 流通構造의 變化過程—定型의인 考察—          | 2. 德川時代의 流通構造         |
| III. 日本의 傳統的인 流通構造—都賣上主導의 流通 system— | 3. 明治—大正期の 流通構造       |
|                                      | 4. 都賣商中心 市場構造의 特質과 矛盾 |
|                                      | IV. 結 語               |

## I. 序

商品流通市場의 變革過程을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 農産物流通市場史 研究의 出發點이 될 수 있으며 日本 資本主義의 特質을 究明하는 중요한 視角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또한 生産樣式의 變革에 따라 당연히 일어나는 流通過程 變革의 諸問題에 대해서는 經濟史에 있어서 그 연구 축적이 일본이나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상태라는, 流通制度 등이 韓日比研究의 기초자료로서도 필요되고 있다.

그래서 本 研究는 日本의 資本主義 發達過程에 生鮮食料品 특히 青果物 都賣市場의 Performance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農産物 流通市場의 전체로서의 구조적인 형태와 기능 그리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都賣市場 流通機構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되기까지에는 日本特有의 긴 歷史와 複雜性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本小論(1)에서는 우선 傳統的인 流通機構(德川期에서 明治期)의 構造的인 特質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물론 이어서 中央都賣市場의 成立과 成果(1920年代~1950年代), 그리고 高度成長期 이후 現在까지의 變革과 성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 Ⅱ. 靑果物 都賣市場의 變化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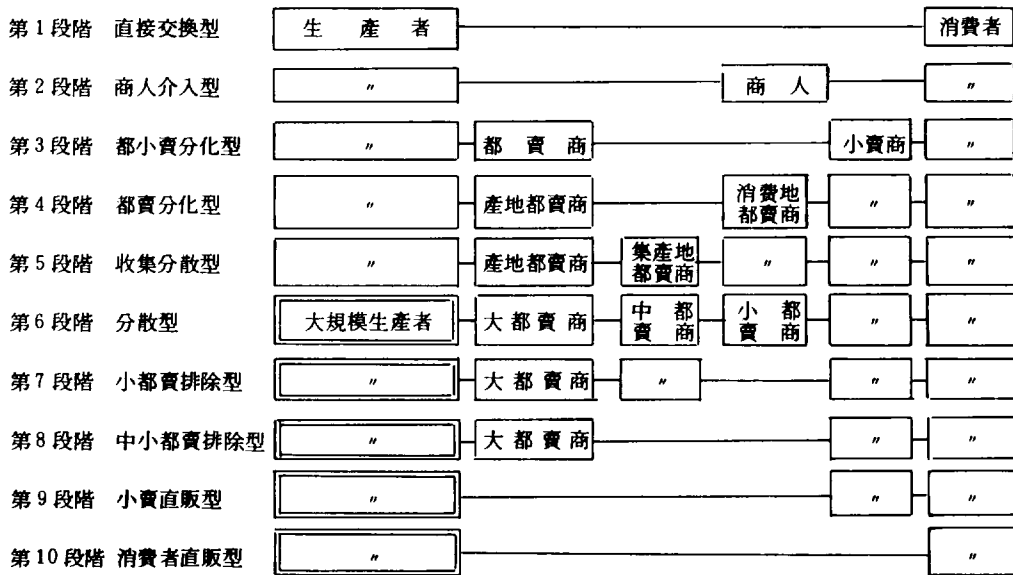
— 定型的인 考察 —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商工業의 분업화가 한결 진전함에 따라 地域間的 分業關係도 성립·발전하여 나감은 물론 이에 따라 商品流通市場이 확대·심화되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市場이 확대·심화되어 나감에 따라 商品의 流通機構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심화·발전하여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소위 流通機構의 類型化를 시도하거나 歷史的 發展傾向으로서 파악하려는 등 이미 많은 先學들의 연구성과가 나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類型的으로 정리하여 日本의 靑果物都賣市場의 전체적인 흐름의 傾向性(歷史的인 展開過程을 定型化하여)을 定立하여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時代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특성은 어떠한지를 究明하는 것이 순서일 듯 하다.

靑果物의 流通機構도 일반적인 商品 유통기구의 역사적 전개<sup>1)</sup>와 다를 바 없으나 靑果物의 生産·消費·商品의 特性에서 약간 Arrange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靑果物의 경우도 流通機構가 성립하는 과정의 출발점은 일반 다른 商品의 그것과 다를바 없다. 먼저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靑果物을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형태부터 비롯된다. 즉 生産者—消費者라는 <그림 Ⅱ-2>의 제1단계이다(例 行商等). 다음 제2단계로서는 주로 商品의 性格에 기인되는 것이라 생각되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一定의 「때」와 「장소」에서 서로 만나 거래하는 「市場—

<그림 Ⅱ-1> 流通機構의 歷史的變化 類型圖



1) 橋本 勳: 「現代商業學」, 니르우프 書房, p. 100.

野市」去來形態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더우기 상품화의 단계가 한층 진전해 나가면 제2 단계의 「市場」去來의 形態와 함께 거의 병행하는 형태로 商人이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사이에 介在하여(商人의 發生) 생산자로부터 靑果物을 買取, 이를 직접 소비자에 판매하는 제3의 단계로 접어든다(생산자-상인(상업)-소비자). 이 3단계에 이르기까지에는 靑果物의 生産力도 낮고 個別生産者의 生産量도 적어서 상품생산형태는 아직 primitive한 단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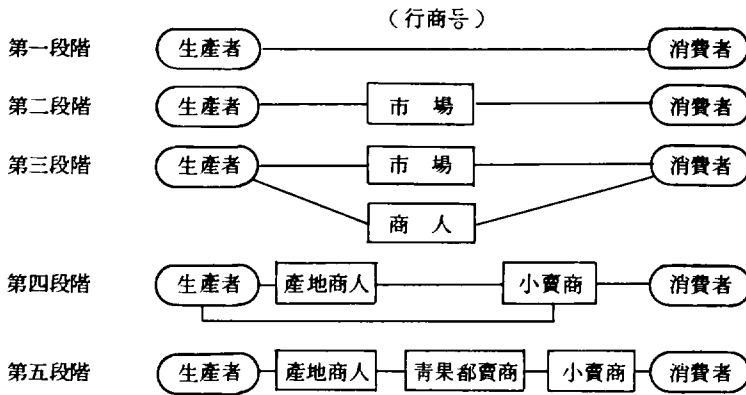
靑果物生産의 生産力이 한결 상승하여 그 상품화도 진행되고 그와 동시에 靑果物 需要側에 있어서의 조건변화로서 都市化가 一定 程度에 까지 진전되어 消費人口가 都市에 집중하는경향이 뚜렷해지면 그때까지와 같은 극히 단순한 流通機構로는 靑果物의 생산과 소비와를 원활하게 연계시킬 수 없게 된다.<sup>2)</sup> 이에따라 제4단계가 형성되어진다. 즉 都市에 定着하여 小賣機能을 담당하는 商人과 그 小賣人에 대하여 靑果物을 직접, 그리고 계속적으로 판매, 공급하는 생산자나 상인등이 나타나 典型的으로는 生産者-都賣商人-小賣商人-消費者라는 流通機構가 성립되어 나감이다.<sup>3)</sup>

더욱 일보 진전하면, 개별생산의 형태로서는 零細, 分散, 個別性 등을 존속시키면서도 생산의 group化, 團地化가 이루어져 靑果物의 生産總量과 販賣量의 규모가 커지고 한편 都市에서의 소비 총량도 증대된다. 그럼에 따라 靑果物의 생산과 소비와의 地域的인 隔絶化가 일단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靑果物의 收集으로부터 仲繼, 分散의 各機能을 專門的으로 원활하게 처리할 一連의 機能擔當者가 아무래도 필요하게 마련이다. 특히 이때 仲繼機能 擔當者의 出現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바로 여기에 도시에서 仲繼의 機能을 일부 담당하고 있던 都賣商<sup>4)</sup>이 이 기능을 특권적으로 차지하게 되고 동시에 靑果物의 유통상 가장 중요한 價格形成機能을 담당한다고 하는 제5단계가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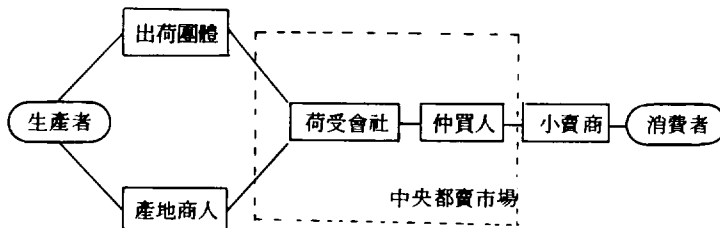
이미 徳川封建制下에서도 지역적으로는 인구의 집중화가 진행된 도시가 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인구가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 流通形態는〈註 1의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단인 都賣分散型的 流通機構가 형성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과물의 경우 流通機構의 歷史的인 展開를 圖示하면 〈그림 II-2 및 II-3〉과 같다.

- 2) 시장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 시장이 확대되어 생산과 소비와의 사이에 사회적인 gap가 벌어지게 되면 유통과정에 들어오는 상품의 양은 증가하고 질적으로 分化하여 機能的 專門化가 이루어진다.
- 3) 多種多樣性和 生鮮性이라는 채소류의 商品的 性格에서 都市에 散在하는 小賣店에 농가가 직접 판매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한 일로써 小賣店의 出現은 동시에 產地商人의 出現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 4) 이 都賣商은 日本 特有의 表現으로는 問屋(とんや)로써 範疇的으로는 前期的 商業資本이다. 이것이 日本 流通構造의 基層을 형성하였으며 去來方法은 買取에 의한 差益도 있으나 주로 委託에 의한 口錢이 중심이다. 우리의 경우로 보면 유사도매시장의 委託商 또는 그역사적 단계의 物商客主와 유사하다. 이 問屋中心體系는 1923年 都賣市場法에 따라 도매시장이 성립되면서 都賣人(荷受會社)으로 再編된다. 현재에도 問屋(wholesaler store)는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都賣市場 以外の 장소에서 소매상에 농산물의 分荷販賣를 하는 法人 또는 개인을 지칭하고 있다.

〈그림 II - 2〉 靑果物流通機構의 歷史的 變化



〈그림 II - 3〉 1923年 都賣市場法이후의 流通機構



이렇게 消費都市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靑果都賣商(問屋)中心의 市場機能=仲繼機能과 價格形成機能 形態와 機構는 德川封建 以後 明治期는 물론 大正期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지속되었다. 변화라고 하는 점에서는 靑果物의 生産構造도 마찬가지이다. 즉 靑果物의 商品化率 그 자체는 확실히 상품생산의 발전에 따라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이른바 小農民의 生産의 副業的 形態라고 하는 本質的인 점에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靑果物의 消費面은 어떠하였는가, 이 기간에 日本의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하였으며 그에 따라 도시인구도 증가하고 있었다. 그렇기는 하나 都市 消費人口 그 자체가 靑果物의 消費需要構造를 스트레이트로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이 사이 소비 측면에 있어서도 그 때까지의 靑果物 流通構造의 存在樣式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간에 1923年 中央都賣市場法이 성립하고 1927年 京都市를 처음으로 하여 당시의 각 도시에 中央都賣市場施設이 세워질 때까지 靑果物의 流通機構에는 기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은채 推移해 온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추세의 개략성을 보다 구체화시켜 時期別로 그 변혁과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 Ⅲ. 日本의 傳統的인 流通機構

— 都賣商 主導型의 形通 system —

#### 1. 序

日本의 流通機構는 대단히 오랜세월에 걸쳐 형성되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高度産業社會를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流通機構에는 傳統的인 流通機構의 痕跡이 언제까지나 멀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적인 유통기구의 構造的 特質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근대적인 유통기구가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가장 典型的인 形態로 전개된 美國의 경우에 비교하여 日本의 유통기구가 결정적으로 다른 構造的 特質을 갖게끔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전통적인 유통기구의 존재에 의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日本의 傳統的인 流通機構의 構造的인 特質을 검토하고자 할 때 德川時代로부터 叙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sup>5)</sup> 왜냐하면 日本의 유통기구에는 무엇보다도 德川時代로부터 現代에 이르는 350年이라는 歷史와 傳統의 刻印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어 그것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서이다.

그러면 中央都賣市場의 前史로서 傳統的인 流通機構(都賣商中心의 市場構造)가 歷史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요약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 德川時代의 流通機構

##### 가. 展開過程

주지되는 바와 같이 17세기초 戰國時代를 收拾한 德川政治權力은 法度政治(武家 諸法度の 制定)에 의해 250여년에 걸친 德川體制의 기초가 구축된다. 또한 農·工·商·賤民의 세습적인 신분제도가 확립되어 商人은 최저의 신분으로 rank된다. 상인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이지 아니라는 思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社會的 蔑視와 屈辱을 오랫동안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武士와 農民은 경제적 기초를 상인계급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상인계급은 이와 같이 최저의 신분으로 rank되었지만 德川政權이 政治安定과 全國的 統合을 실현함에 따라 상업활동은 뚜렷하게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德川時代의 1世紀間에 상인계급

5) 1590(天正18)년에 關東入部를 달성한 德川는 1600年(慶長5年) 統一政權의 代表者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3년후에는 幕府를 개설하였다. 즉 封建國家의 公權力을 대표하는 者로서 政治的 支配權을 統轄하는 권한을 장악했다. 以來 260여년에 걸쳐 존속하다 明治維新에 의해 끝난다(1600~1868年). 그런데 明治·大正期까지 계승된 青果物의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가 성립된 것은 關東·關西할 것없이 이때의 初期에서 부터이다.

은 權力에 끼어들어 서서히, 교묘하게 상업활동을 전개하며 敵對인 環境에 대한 自己防衛를 강구하기 위해 複雜精緻한 商業組織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價格과 供給量의 操作을 위시로 하는 獨占的 Visiness의 방법을 여러가지로 모색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형성되어 온 德川時代의 商業組織은 현재 일본의 流通機構의 構造의 特質까지도 특징짓는 데 가장 결정적인 刻印을 남기는 것이 되었다.

#### 나. 去來形態

먼저 都賣商(問屋)과 荷主와의 관계를 보면 영업상의 필요에서 「親戚關係」와 같은 固定的 關係였다.<sup>6)</sup> 이러한 관계위에 기상변동에 따라 入荷量에 큰 변동이 생기기 쉽다는 채소류의 商品的 性格으로 말미암아 靑果都賣商이 荷主의 채소를 受託販賣한다고 하는 慣行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형성될 수 있었다. 都賣商이 入荷量 變動에 따른 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나 都賣商으로서 損失回避가 목적인 한 品目·時期에 따라 買取에 의한 投機的 行爲를 排除할 뿐만 아니라 판매결과의 決算은 오로지 都賣商 혼자하게 되므로 實際의 去來價格과 送金하는 決算金額과의 操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주로 販賣委託이었다. (荷主에의 待遇程度와 操作如何는 都賣商 經營 成否의 key이기도 하였음)

한편 都賣商과 小賣商과의 관계도 荷主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固定的이었다. 다분히 商人인 小賣商은 매입한다고 하는 우월적 입장을 이용하여 靑果都賣商을 선택할 수는 있었다. 이에 대하여 靑果市場은 幕府의 權力과 결부되어 法的保障에 의해 스스로의 獨占的 地位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 獨占的 形態는 東京의 神田市場이 將軍家의 채소류 공급소로 지정되어 여기에 納入機關이 설치됐다. 또한 중요한 품목의 채소에 대해서는 特定の 都賣商이 上納請負人으로서 지정되었다. 「이들 上納請負人은 業界의 유력한 도매상으로써 幕府(武臣政權의 최고권력기관임)는 이들의 商品集荷力을 이용하여 上納品을 확보하고 都賣商은 納入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더욱 상품의 集荷力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하는 相互依存의 관계였다. 그들 상인에게는 東京에 流入해 오는 해당 종류의 물건 중에서 최고의 품질의 것을 뽑아 上納한다고 하는 대의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請負人 이외의 상인에 거래는 있을 수 없게 하여 모두가 자신들의 손을 거친 다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都賣商 獨占權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상품은 産地→上納請負人(都賣商)→仲賣→小賣단계로 극히 整然한 르트를 형성케 하여 幕府의 商品流通 統制의 典型을 이루었다.」<sup>7)</sup>

이와 같은 政治權力에 의한 都賣商 獨占權의 制度的 保障은 神田市場뿐만이 아니라 大阪의 天滿靑果物市場에도 獨占的 地位가 주어져 있었으며<sup>8)</sup> 더욱이 靑果都賣商에 있어서의 特權은 株仲間<sup>9)</sup>

6) 都賣商中心 市場構造의 모순항목에서 더욱 설명이 되겠지만, 荷主와 都賣商의 관계는 2, 3代 계속하여 去來하는 것도 결코 드문일이 아닌 固定的 關係로서 단골 都賣商의 決算이 다른 都賣商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경우에도 荷主(農民)는 그 대상을 간단히 바꿀수가 없었다. 都賣商으로서는 荷主에 대한 service를 荷受量의 확보라는 점에서도 당연한 행위로 「親戚처럼」 취급을 했던 것이다. 吉田忠: 「農産物の流通」, 家の光協會, p. 55.

7) 神田市場協會: 「神田市場史」 上卷 p. 98.

8) 大阪市 中央都賣市場 開設 40周年 記念事業會: 「大阪中央都賣市場誌」, p. 7.

이라는 閉鎖의 制度에 의해 보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特權을 基軸으로 하여 經濟關係와 義理人情關係가 얽혀서 都賣商과 小賣商은 固定的인 關係가 성립하였다.

한편 東京을 위시하여 諸都市의 인구 증가에 따라 주위에서의 채소류 생산이 확대되고 入荷單位가 커지면서는 荷受한 都賣商의 分荷를 종류에 따라 引受하기도 하고 또한 小賣商을 代理하여 그것을 評價하는 업무를 分擔하하는 仲買<sup>10)</sup>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都賣商과의 明確한 업무 分擔을 통한 담당자를 제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 하기보다도 株仲間이라고 하는 閉鎖의 制度로 인하여 새로운 都賣商의 出現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既存都賣商의 商號로써 독립상점을 차리는 方便으로(都賣商店에 오랜동안 일한 심부름꾼=仲買에게 동일 상호로 새로운 상점을 차려주는 형태로서) 혹은 Outsider적 新興商人을 舊制度에 포섭하는 方便으로 出現했다는 색채가 짙으며 都賣商과의 境界는 애매하였다. 幕府와 都賣商과의 關係에서 都賣商이 荷受를 독점하고 仲買는 都賣商으로부터, 小賣商은 仲買로부터 각각 물건을 매입하는 제도가 강제되었지만, 明治期가 되면 株仲間制度를 비롯한 都賣商의 特權이 제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兩者間에 分荷가 종종 일어났다.

그런데 대부분의 仲買(一部에 出現한 集荷擔當의 產地仲買 포함)는 그 前身이 都賣商의 고용인이었으므로 그들은 都賣商에 대하여 극히 종속적인 존재였다. 즉 荷主(農家)-都賣商-小賣商이라는 폐쇄적 고정적 關係에 農家-(產地)仲買-都賣商-仲買-小賣商이라는 형태로 仲買가 介在했어도 그 본질에는 變換이 없었다. 오히려 固定性은 강화되었다.(都賣商과의 去來는 個別相對去來였다)<sup>11)</sup>

#### 다. 특징

① 이 때의 流通機構가 都賣商(問屋·仲買) 主導型的 構造로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즉 대규모의 都賣商·仲買는 생산단계와 소매단계의 gap를, 그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상호조정하고 매개하는 役

9) 株仲間(카브나카마)의 組織: 都賣商(問屋)은 荷受·委託賣買·加工을 統括하여 생산과 유통의 key를 장악하여 그 세력을 증대시켜 나갔다. 이들 商人은 組織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幕府는 처음에 이를 금지했지만 치안이나 단속의 편의에서 公認된 株仲間이 出現하여 保障받게 된다. 이들은 連帶保證과 相互扶助, 物價調節로부터 祭禮에까지 關係하여 높은 共同體意識과 保守的인 特權의 유지에 腐心하여 幕藩(封建社會의 政治體制를 「幕藩體制」라함) 商工業政策을 수행시키는데 力을 담당하였다. 좀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都賣商·仲買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조직의 봉건적 성격은 그이 株仲間(幕府의 허가를 얻어 결성한 同業組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gild조직을 조직화한바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株仲間は 權力의 庇護아래 株仲間內의 경쟁은 제한되며, 또 株仲間外와의 거래는 금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株仲間は 사는 쪽, 파는 쪽, 兩市場에서 쉽게 가격을 협정하는, 혹은 공급량을 操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하여 株仲間は 때로는 慣行에 의해, 때로는 特許의 권익에 의해, 勢力圈的인 특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獨占機能은 생산자·소비자에 여러가지 不利를 가져오게 하였음은 물론이다.

10) 仲買는 都賣商과 小賣商 혹은 생산자, 荷主와 都賣商과의 중간에서 서서 物品이나 권리 매매의 媒介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하는 中間商人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仲買人은 해당 都賣市場의 취급상품량이 증대함에 따라 分荷機能=一定的 확정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정된다. 그런데 仲買人은 都賣商(問屋)가 되기위한 一階梯라는. 성격면에서는 낮은 측면이 있지만 대량상품의 分荷機能을 담당하게 됨은 새로운 측면을 갖고 있다. 藤田貞一郎: 「近代生鮮食品市場의 歴史的 研究」, p. 27.

11) 吉田 忠: 「農産物の 流通」, pp. 56~58.

割을 통하여 中間의 地位를 戰略的으로 활용, 價格形成을 지배하여 流通機構의 中樞를 장악한 것이다. 이들 都賣商·仲買는 기능에 있어서나 취급상품에 있어서 더욱 전문화를 추진시켜 나갔다.

② 또한 流通機構가 複雜多端한 구조로 되었다는 점이다. 상품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몇단계(上記)에 걸쳐 中間段階를 경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sup>12)</sup>

이와 같이 都賣商·仲買制를 基軸으로 하여 都賣商(問屋)主導型的의 流通system이 형성된 것은 上記한(幕府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소규모 생산자가 압도적이고 또한 소규모 소매상이 지배적이었으며 동시에 수송·보관·하역등 物的의 流通과 통신·정보 등의 기술과 방법도 미숙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생산지·집산지·소비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 수록 都賣商·仲買를 중심으로 많은 仲媒를 필요로 하여 그것은 德川時代의 유통기구를 더욱 복잡하고 余曲折케 하였던 것이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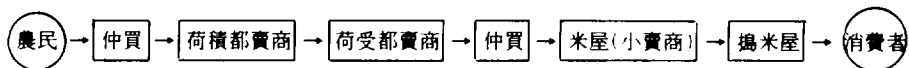
### 3. 明治·大正期の 流通機構

#### 가. 展開過程

明治維新(1868)은 日本의 德川封建制로부터 訣別하여 近代資本主義에의 디딤을 개시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sup>14)</sup> 日本의 政治權力機構가 大政奉還(1867), 王政復古(1868)라는 2대사건을 통하여 德川幕藩體制로부터 明治新政府로 옮긴 것은 경제체제의 역사적 전환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신분제도의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하여 대폭적인 사회변혁을 가져왔으며 그와 동시에 德川時代에 形成된 株仲間를 중심으로 하는 都賣商·仲買의 전통적인 특권도 폐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靑果市場의 都賣商은 同業組合에 의한 規制로 그 특권을 유지하려 하였는데 이를 가능케 하여 준것은 新政府의 營業鑑札制度였다. 新政權 確立에 따라 財源 마련에 급급한 정부는 地租와 함께 商人으로서의 營業稅收入을 그 財源으로 삼으려 한것이다. 그래서 地租收入의 확보를 半封建的인 寄生地主制의 殘存을 통하여 실현바와 같이 營業稅收入-營業鑑札의 交付를 都賣商組合을 통해서 달성하려 한 것이었다. 더구나 仲買·小賣商에 대한 감찰교부도 이 조합을 통하게 하였다. 明治維新에 의해서도 靑果都賣商의 특권이 완전히 붕괴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sup>15)</sup> 그렇기는 하나 明治維新의 諸制度 改革에 의한 商業的 農業의 發展,<sup>16)</sup> 이에 따른 새로운 農產物流通의

12) 佐藤 肇：「日本の流通機構」，有斐閣，pp. 53~54.

13) <그림 III-1> 德川時代의 米穀流通經路



<佐藤肇：前掲書，p. 54>

14) 明治期는 1868~1911年, 大正期는 1912~1925年인데, 明治政府는 富國強兵, 殖産興業의 기치아래 軍事的=戰略的 工業을 중심으로 근대공업의 移殖·育成을 지향하였다.

15) 神田市場協會：前掲書，pp. 263~268.

16) 商業的 農業의 展開는 먼저 果實生産(감귤, 枇杷, 포도등)에서 나타났으며 專賣統制의 해소, 鐵道等의 발달에 따라 新農産지의 形成이 촉진되었다.



발전을 완전히 억압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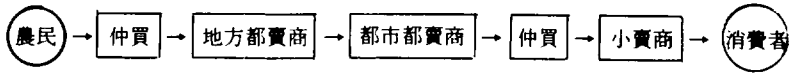
徳川時代の 상품은 농산물 혹은 가내공업적 제품이었지만, 明治時代는 주요한 상품으로써 자본제적인 공장생산을 통한 제품이 주가되어 그 과정에 전통적인 商業組織은 해체되고 종래의 都賣商·仲買의 位置가 급속히 弱體化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물론 明治期에 있어서도 都賣商은 상품의 集散을 媒介하는 중간적 지위를 활용하여 여전히 實權<sup>17)</sup>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産業資本의 發興과 함께 中間商人으로서의 地位는 상대적으로 弱體化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상업활동의 담당자로서의 변천에 불과한 것이고 상업활동 그 자체는 오히려 크게 발달시켜 나갔다.

徳川時代の 流通經路는 都賣商·仲買制를 基軸으로 하는 엄밀한 商業組織·商業制度를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때에 와서는 都賣商과 仲買의 구별이 무너져 都賣商은 동시에 仲買가 되기도 하여 明治·大正期에는 都賣商·仲買를 함께 「都賣」라 하게 되어 이른바 都賣商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實際로는 都賣商(問屋)이라는 말은 現代에 있어서도 都賣商의 同義語로써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8)</sup>

이와 같이 明治維新後 일본의 상업조직은 크게 변모를 거듭해 상업조직의 주요담당자는 株仲間에 의한 都賣商(問屋)·仲買로부터 都賣商으로 移行하였으나 流通機構 그 自體에는 실질적으로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여전히 상업조직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都賣商이 방대한 數에 달하는 小規模零細 生産者와 小賣商 양쪽을 媒介하여 操作한다고 하는 構造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商品生産化할 수 있었던 쌀생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주지되는 바와 같이 明治維新의 土地改革<sup>19)</sup>의 불철저때문에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제적인 발전의 길은 봉쇄되어 여전히 小規模零細經營에 맡긴 결과, 거기에서도 都賣商(問屋) 主導型的 유통 system은 그대로 殘存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참고로 쌀의 유통경로를 보면 <그림 III-2>과 같으며 徳川時代の 그것과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 17) 봉건시대부터 존재해온 이들 靑果都賣商은 明治期에 들어서도 역시 靑果物의 유통거래상에 주로 仲繼的 機能과 價格形成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온 實態에 현실적으로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그후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도시인구도 증가하여 靑果都賣商은 새롭게 참여하는 상인과 더불어 그 기반을 점점 굳혀 나갔다.
- 18) 明治-大正期에 日本에서 成立된 都賣商(問屋)은 기본적으로 委託都賣商·買取都賣商·加工都賣商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①委託都賣商이란, 생산자 기타의 委託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荷受都賣商(委託商) 및 靑果物 都賣商(靑果物 委託商)등의 市場都賣商이다. ②買取都賣商이란, 생산자 또는 그외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都賣商 혹은 小賣商에 再販賣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都賣商이다. ③加工都賣商이란, 생산자 또는 그외로부터 原材料를 구입하여 製造·加工을 행하여 商品化한 연후에 이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요컨대 買取都賣商이기는 하나 製造·加工을 행하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佐藤 肇：前掲書，pp. 66-67.
- 19) 土地制度의 改正에 따라 土地永代買賣의 금지는 해소되고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반 농민의 비참한 小作關係는 여전히 남긴채 그대로였다. 徳川時代로부터 名目上的 土地所有者는 地卷交付에 의해 새롭게 地主라는 地位가 公認되어 많은 地主層을 만들어 내었지만 현실의 耕作農民 대다수는 小作人으로서 되어 과중한 小作料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地租와 地代(小作料)등을 공제하고 나면 小作人의 손에는 겨우 32% 정도 남았다고 지적되고 있다. 武藤 誠編：「日本史通論」，創文社，pp. 113-114.

〈그림 Ⅲ-2〉 明治이후의 米穀 유통경로



이렇게 日本의 流通機構는 하등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는 바 없이 明治以後에도 그대로 그 機能이 계속되었는데 쌀을 대표로 하는 식료품의 분야에서 보여주는 都賣商 主導型의 流通 system은 새로운 工業製品으로 등장한 綿製品을 중심으로 하는 衣料品분야에 있어서도 거의 변한 것이 없었다.

今世紀에 접어들면서 日本의 産業化가 더욱 진전하여 財閥支配體制가 확립됨에 따라 公業 sector는 商業 sector에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끔 되어 대규모 기업이 급속하게 성장해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小企業은 중요한 Weight를 차지하여 1934년이 되었어도 종업원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全事業所의 96% 이상, 全従業員數의 半數에 가깝고 全工業生産高의 약 3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消費財의 생산은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이었다. 이와같이 小規模 零細한 中小工場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유통기구는 都賣商의 機能을 여전히 필요로 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기초를 갖는 대규모 재벌형의 maker와 기술적 기초가 뒤늦은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과의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까지도 都賣商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工業 sector의 발달에 對比하여 商業 sector의 상대적 중요성은 후퇴했지만,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특히 전통적인 소비재분야에서는, 都賣商은 여전히 中小메이커와 中小 小賣商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武器가 되는 것이 都賣商의 資金力이었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sup>20)</sup>

여기에서 이 時代의 商業조직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밝힐 겨를은 없으나 明治以後 일본의 유통기구의 구조적 특질이 德川時代 以來의 전통적인 都賣商(問屋) 主導型의 流通 system을 계승하여 기본적인 system으로서 2차대전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하등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점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나. 去來形態

그러면 이상과 같은 都賣商을 중심으로 한 流通機構內에서 靑果物의 去來方法, 혹은 去來實態는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靑果物의 去來方法은 靑果物이라는 특수한 상품적 성격<sup>21)</sup>에 규정되어 靑果都賣商과 出荷者와의

20) 佐藤 肇： 前掲書， pp. 66~68.

21) 靑과물의 유통형태를 복잡하게 하며 多段階의인 유통 르트, 機構를 형성케하는 요인으로는 대략 다음 두가지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靑果物 生産者側의 供給構造와 消費者側의 需要構造와를 규정하고 있는 生産·消費規模의 零細性·分散性, 그래서 個別性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生鮮食品인 靑果物의 商品의 性格, 즉 低貯藏性, 低輸送性, 重高性, 價格에 대한 非彈力性, 品質管理의 곤란성 등이다.

한편 日本의 농업은 水稻作 生産을 中核으로 하는 영세 소농적 경영형태이고 靑과물 생산은 일부의 과실류나 특산물적인 것을 제외하면 소농생산형태에 규정된 副業의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거래는 出荷者側이 靑果都賣商에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였다.<sup>22)</sup> 그리고 靑果都賣商과 小賣商人과의 去來는 일부 果實과 채소는 競賣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그외는 相對去來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都市의 靑果都賣商은 직접생산자 또는 出荷團體<sup>23)</sup> 產地商人등으로부터 들어오는 靑果物의 販賣委託을 받아 자기의 店舖에서 이것을 小賣商人에 대하여 競賣에 붙이거나 相對로 가격을 결정 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現物은 구입한 소매상인에 인계되고, 반대로 出荷者에 대해서는 競落價格이나 相對去來價格으로부터 一定의 手數料(약 10%)를 빼고 정산되어 송금되는 형태였다.

그런데 생산자 혹은 산지상인들이 판매위탁한 靑果物을 小賣商人에 대하여 競賣하기도 하고 相對去來도 하는 去來形態는 靑果物의 생산과 소비와의 영세, 분산, 개별성과 그 상품적 성격에서 보면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적어도 競賣의 경우는 靑果都賣商에 출하된 청과물이 부패되기 전에 가격이 결정되어 소비자에 넘어가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하며 수요와 공급과의 전망을 기초하여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러한 생산구조에 相對應 하는 형태로 그 유통기능을 담당한 靑果都賣商이 존재하여 그 나름의 기능을 달성해 온 것이다.

靑果物의 소비측면에 있어서도 1910년대에 들어설때까지 都市化傾向은 뚜렷하지 못했으나 都市人口의 증가에 따라 청과물의 총소비량도 증대하기는 했으나 그 소비의 영세성, 분산성, 개별성이라는 소비 사이트의 규정적 조건은 당시의 靑果都賣商에게 前期的 商業資本의 性格을 짙게 附着시켜 주었다.

22) 1920~25년 무렵의 委託은 東京神田市場이 약 70%, 大阪의 天滿市場이 약 80% 수준이었다. 神田市場協會: 前掲書, p. 916.

23) 상업적 농업의 전개에 따라 1890년 무렵 이후 新興産地의 형성(감귤, 비파, 포도등) 및 1910년 무렵부터의 促成栽培의 채소류 등이 본격화되면서는 產地仲買 혹은 產地都賣商의 성립과 세력확대가 나타났다. 이들 산지 상인은 都市의 都賣商에 판매함에 있어서 무조건 委託方式을 택하였으며 이들간에는 固定的인 特約 관계가 이루어진다.

한편 1920년쯤에 이르러 「生産者로부터 직접 消費者에게」라는 標語의인 말이, 특히 靑果物에서 유행하였다. 이미 살핀바와 같이 靑果物의 去來는 中間的인 產地商人, 都賣商, 小賣商이라는 각종의 업자가 2중3중으로 介在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中間機關의 去來를 배제하여 직접 소비자에 판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었다. (例 行商, 生産者 直賣市場-野市, 京都의 立賣人등) 그런데 여기에는 特定時期, 特定品 이외에는 限定이 있기 때문에 그 次善으로써 생산자가 소비시장에 직접 출하하여 산지상인을 배제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1920~25년에 급속히 발전하였다. 즉 생산자 스스로가 선별, 포장하여 직접 소비자 都賣商에 출하하는 것인데 이 경우 당연 수송비는 자기 부담이었다. 大生産者에게는 가능했으나 영세생산자가 개인으로 이 방식을 택하는 데에는 수송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不經濟的이었다. 그래서 결국 共同出荷方式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비로소 出荷組合의 組織이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출하조합은 항구적인 조직이 아니라 季節的이었으며 任意的인 것이었다. 이 出荷組合은 특정의 都市都賣商과 결부되었고,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생산자는 생산물을 이 都賣商에 판매 위탁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때로 前渡金을 받기도 하는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出荷組合의 出現등에 따라 系統農會에 의한 販賣斡旋運動이 전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本文(研究 2)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때의 荷主形態는 ①순수생산자 ②농가의 생산물을 매집하여 출하하는 산지상인 ③산지의 생산자로부터 구성되는 출하조합 ④산지상인의 상호조직에 의한 출하조합 등인데, 1918~19년 무렵까지는 산지상인을 荷主로 하는 것이 많았으나 그후 점차 생산자를 荷主로 하는 것이 증가하여 당시의 비율은 상인 45%대 생산자 55%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去來實態는 반드시 그렇게만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靑果物 競賣의 경우에도, 예를 보면 실제의 競賣去來에 있어서 去來價格(競落價格)이나 去來量을 第3者는 거의 알 수 없는 이른바 「符牒去來」(가격을 符牒으로 즉 상품값을 나타내는 은어 또는 암호에 의해 서로 교섭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우기 相對去來의 方法은 이른바 袖下去來(옷소매 속에서 손가락을 서로 쥐어서 교섭하는 거래)의 형태였는데 이것이야말로 去來의 當事者 밖에 알 수 없는 가격결정 방법이었다.<sup>24)</sup>

특히 出荷者側에서 보면 전혀 去來結果를 알 수 없는 不明確한 去來方法이었던 것이다.<sup>25)</sup> 그러므로 실제로 出荷者가 받는 가격은 극단히 말하자면 靑果都賣商에 의해 상당한 裁量이 가해진 가격인 경우가 많았다. 이와같은 去來實態 속에 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내포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靑果都賣商은 다음에 살피는 바와 같이 近代的인 委託買賣資本이 아닌 前期的 商人資本으로서의 性格—단순히 販賣委託에 따라 받는 手數料만이 아닌 前期的 商人으로써 賣買差益利潤部分까지도 확보한다고 하는—이 크게 남아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서 그와같은 前期的 性格과 더불어 靑果都賣商은 出荷者側을 자기사업의 형편에 알맞도록 指揮하여 差別的인 去來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靑果物의 生産者 受取價格을 낮게하고 반대로 消費者價格을 높게하는, 그리하여 流通費用部分이 커지는 요인으로도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要素들과 더불어 零細靑果都賣商의 존재는 위로부터의 靑果物 流通合理化政策을 펴나가게 한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1923년의 中央都賣市場法の 成立과 開設인 것이다.

#### 다. 特徵

이상 고찰한바와 같이 靑果物에 있어서의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는 封建時代에 그 起源을 가지며 維新後 농업생산의 전개와 도시의 팽창에 따라 變質을 보이기 시작하여 固定性, 閉鎖性이라는 特質을 서서히 弛緩시키며 大正·昭和期에 이르게 된다.

### 4. 都賣商 中心制 市場構造의 특질과 모순

#### 가. 特質

都賣商 中心制 市場構造의 구조적 특질은, 生産者·仲買·小賣商이 특정의 都賣商을 중심으로 결부되어 있어 자유경쟁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固定的이며, 신규의 생산자와 상인이 이 既成流通機構에 들어오려 해도 배제되고 만다는 의미에서 閉鎖的이다, 라고 하는 점에 있다. (이 고

24) 아무런 去來形態에 따른 去來量은 相對去來 60%, 競賣 30%, 立賣人販賣 10%였으며 相對去來方法으로는 「袖下去來」이외에 「耳遺去來」(귀를 서로 맞대고 교섭하는 것) 珠板去來(주판위에 놓은 가격으로 교섭하는 것) 등이 보다 많이 행해졌다. 이것은 多數의 買入者를 한자리에 모아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거래결과를 當事者以外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이었다.

25) 都賣商이 정직한 것만은 아니었다. 1圓에 팔고서도 90錢 혹은 80錢에 팔린것으로 決算하는, 때에 따라서는 1圓에 팔린것을 1圓十錢으로 決算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위탁수수료는 대개 10%였지만 때에 따라 20~30% 收入을 올릴 수 있었다: 神田市場協會: 前掲書, p. 335.

정적 폐쇄적관계는 실은 소매상과 소비자간에 있어서도 소매상까지의 단계만큼 強固하지는 않으나 소매상의 지역적 독점과 그에 따른 고정적인 顧客關係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靑果物에 있어서 이와같은 특질을 가져오게한 기본적 요인은 德川時代에 있었던 株仲間등의 權力 내지 法的 制度에 의한 규제에 있으며, 維新 이후는 同業組合으로서의 都賣商(問屋)組合에 의한 규제에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① 유통에 관한 기술적 지식, 가격형성을 위시로 하는 유통정보가 먼저 都賣商에 독점적으로 집중하여 이것이 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용 내지 전달되고 있다는 점.

② 代金の 授受를 둘러싼 前渡金, 支拂猶豫 등 前近代의인 금융관계가 자금력이 풍부한 都賣商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

③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각단계에 ①, ②를 軸으로 하여 경제외적인 사회관계를 포함한 前近代의 人間關係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등이 付隨의 要因으로서 이 고정적 폐쇄적 관계를 補強하고 있다. 明治以後의 靑果物 都賣商制 市場構造는 역시 이 부수적 요인쪽이 보다 중요하게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 限에서 明治中期以後 靑果物의 생산·유통과정에서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신흥산지의 확대와 신흥상인 및 신규시장의 勃興을 충분히 규제할 수 없었다. 청과물의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는 이윽고 1926년 이후 中央都賣市場으로 再編 吸收되어 나가는 前提의인 質的 變化를 1920년대말로부터 1930년도 초에 걸쳐 流通制度 내지 慣習에 있어서 一定의 「自由化」라고 하는 방향으로 느슨하게 추진되어 나갔던 것이다.

#### 나. 矛盾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에 있어서는, 중심에 위치한 都賣商이, 그 固定性·閉鎖性이라는 특질을 이용하여 不公正한 欺瞞의 方法, 作爲的인 需給의 操作등에 의해 高率의 前期의 利潤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短期的인 需給均衡價格으로부터 乖離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안정적인 가격변동을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는 資本制生産의 발전에 따른 도시팽창과 소비의 대량화,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농업경영의 전개에 따른 産地의 移動·擴大와 생산의 대량화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충분히 對應할 수 없어 여기에 바로 모순이 생겨나게 마련이었다. 이 모순은 自由스런 商業의 農業의 전개와의 사이에 있어서, 그리고 대량화하는 도시의 농산물소비와의 사이에 있어서 兩面的으로 나타났다.

商業的 農業과의 모순은 우선 무엇보다도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의 고정적 폐쇄적 특질로 말미암아, 그 자유스런 발전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것은 新規 市場이나 商人과 결부된 新興産地가 既成市場의 都賣商에 의해 그 발전을 방해받는 것만이 아니다. 既成市場 都賣商의 系列下에 있는 생산자도 그 규모확대, 생산물의 종류·품종의 선택과 생산기술의 혁신등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아 발전이 저해되었다. (1890년대以後의 감귤 등 新興産地의 대부분은 靑果都賣商의 新産地開發努力에 의 것이다.) 또한 都賣商과 仲買 특히 家畜商이 손에 넣는 巨額의 利潤은 생산자의 농업경영을 불안정하게 하여 零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농산물의 대량소비와의 모순은 먼저 物的 流通面에서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사회적 생산력

에 규정된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의 流通施設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곧 狹隘케 되어 이른바 환경위생문제를 격화시켰다. 이것은 都市에 있어서의 生鮮食料品の 순조로운 흐름을 阻止하여 가격 등귀를 마찰적으로 증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격증하는 도시의 생선식료품 수요에 대하여 농업생산력의 충분한 향상이 진행된다 해도, 유통시설의 狹隘性이 상존하고 있다면 생선식료품의 가격 등귀의 모든 요인이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의 流通施設問題에 있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가까운 사태가 단기적으로 일어난 바가 몇번 있었다.

그러나 도시팽창과 농업 생산력의 정체라고 하는 기본적 모순이 가격등귀의 基底에 있는 듯한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流通施設狹隘化가, 아무튼 都賣商이 행하기 쉬웠던 不公正한 去來와 그들이 손에 넣는 巨額의 前期의 利潤이 서로 어울려서 物價問題를 보는 눈을 유통국면에만 집중시키고 마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도시의 생선식료품 등귀 요인은 流通局面에 있어서 都賣商 中心制 市場構造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정부의 initiative에 의해 中央都賣市場法의 제정과 그 개설이 추진되었다. 만들어진 中央都賣市場에는, 산업자본(수산자본)의 힘이 커짐으로써 魚都賣商(問屋)과의 모순이 컸던 水産物과 商業的 農業의 展開로 靑果都賣商(問屋)의 힘이 약화되고 있던 靑果物이 上場되었던 것이다.<sup>26)</sup>

#### IV. 結 語

이상은 일본의 生鮮食品(특히 靑果物을 中心으로) 流通市場 變혁과정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러면 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經濟史—流通史의 意味를 다시 요약해 보기로 한다.

徳川社會體制(1600~1867)는 封建的 生産樣式下에 놓여 있었다. 즉 封建的 小商品生産이라는, 그럼으로써 流通 system은 前期的 商業資本=都賣商(問屋) 中心으로 이루어져 이들에 의한 支配, 統制, 收奪下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明治維新後 이러한 株仲間(前期的 商業資本=問屋의 組織體)등의 特權機構는 해체되고 자유로운 商品流通 system이 전개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또한 생산부문에 있어서도 封建的 經濟外的 強制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農水産物 生産部門은 工鑛業部門에 있어서의 他律的 産業資本化와 같은 위로부터의 産業化 方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明治期(1869~1920年代)에 있어서도 舊來의 傳統的인 流通方式이 유지될 수 밖에 없었다.<sup>27)</sup> (※ 이후 1920年代의 中央都賣市場의 成立과 發展에 관해서는 본 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논문집 「사회발전연구 창간호」에 취급되어 있으며 제 3부에 해당하는 高度成長期 以後의 것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26) 吉田 忠 : 前掲書, pp. 79~84.

27) 이 「日本の 農産物 流通構造에 관한 연구」(1),(2),(3)는 日本大學 經營 第1研究室(宮崎 宏 教授)의 資料가 여러가지로 참고 되었다.

## Summary

A Study on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Japan

-Centered on Tokugawa period-Meiji period-

*Kang Kyung-sun*

This study takes a general survey of the changing process of a circulation market centering around fish food, and vegetables and fruits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the process by means of an economic and circulatory history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social system in Tokugawa period (1600-1861) took feudalistic production method called feudalistic small-scale production. A circulation system was formed with priority given to wholesale business with an epoch-making trading capital. The system was governed, controlled and plundered by wholesale businesses.

Since the Meiji Restoration, the privileged organization like guilds composed of and epoch-making commercial funds have been dissolved to form a condition good enough to develop a free commodity-distribution structure. Also feudalistic and non-economic compulsory measure has disappeared. But the production divisio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as not so actively industrialized as industrial capital in manufacturing and mining industry.